

영혼의 호흡 마가복음15:40-16:8

메시지 1부

안녕하세요. 저는 윌링던 교회의 목사 레이입니다.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길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숲속을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크로커스, 수선화, 벚꽃. 죽은 것처럼 보였던 가지에서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징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봄인데도 겨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꽃이 사라졌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2000년 전, 계절은 봄인데, 마치 겨울 같은 느낌입니다.

예루살렘 외곽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계절이 언제든 그 순간은 여러분을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장면을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40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그녀를 일곱 귀신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눅 8:2; 막 16:9). 이제 그녀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분은 죽었습니다.
- 살로메,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마 27:56),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제자들, 천둥의 아들들(야고보 요한의 별명). 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막 6:3). 예수님이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한 늙은 선지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 또 칼이 네 영혼을 찌르듯 하리니" (누가복음 2:35).
- 마리아의 고통이 어떨지 상상이 가시나요? 거기에 매달려 있던 것은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시와 마을을 걸으시면서 그들은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 사람이 보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위로와 권위에 이끌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거기서 지켜보며 그분을 섬기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2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헤저물기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자 유대 공의회(산헤드린)의 저명한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방식(눅 23:51)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따르는 자입니다(요한복음 19:38).

이제 그는 용기를 내어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제도에 의해 신성모독자로 선고받은 로마의 적의 시신을 요구할 만큼 용감합니다. 그는 그것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로마인의 손에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 즉 용기와 희망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45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가 놀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자들은 보통 하루나 이틀 동안 살았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일부 비평가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고 단지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무덤의 서늘한 속에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환상적인 생각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그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수 세기 동안 집권하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중 십자가에서 살아 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로마인들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를 청소동물들을 위해 남겨두었지만 유대인들은 적들까지도 묻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요셉은 빨리 일해야 합니다. 장사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가 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에게 빌라도의 허가를 받고, 장례용품을 구입하고, 시신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빌라도는 시신을 신속히 풀어주었습니다.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요셉은 아마도 그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 석회암을 파낸 무덤에 시신을 눕힌 후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무덤 사진). 완료.

요셉은 예수님을 존경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이 묻힌 곳을 봅니다. 그들의 온 영혼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인들이 예수의 죽음과 요셉을 애도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행위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사랑과 존경의 몸짓으로 비극적 드라마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비문(그림)과 같이 돌에 뭔가를 새길 수도 있고, 고대 유대 문헌의 몇 줄이나 고대 비극에 대한 기록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잔인했습니다. 요셉과 세 여자는 그를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너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합니다. 하지만 ...

1. 계속 호흡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저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조직의 위기 속에서, 관계가 끝났을 때, 이런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저희 부부는 계속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 과제를 수행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계속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João와 Elis의 말을 들어보세요

간증: 첫 번째 부분(비디오)

엘리스: 저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던 35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건강 외에는 무엇이든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모든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의 우울증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저는 끊임없이 그분께 남편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편 없이 제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 할 수 있겠습니까?

주앙: 저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걱정과 의심이 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그녀와 동행하도록 저에게 강요한다면 우리 결혼이 유지될 수 있을까? 아내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제 삶을 살도록 허락할 것인가? 저는 그녀가 따르기로 결정한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스: 2015년에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신학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인 2021년에 남편의 지원으로 윌링던에서 목회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참여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전적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순간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일이 저와 남편을 갈라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주앙: 엘리스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만난 순간부터 자신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통제된 불안과 공황 장애의 제약 속에서도 직업적, 재정적 성공을 추구하는 데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부름심을 받았을 때 그녀의 목회 인턴십을 지원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피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주 그녀가 신앙 여정과 교회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비난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대부분의 커플들이 그렇듯 우여곡절을 겪으며 관찮은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실패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2부

우리가 불안, 우울증, 공황 장애에 직면하고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바른 일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멈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16: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세 여인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해가 진 후 그들은 향신료를 사러 갑니다. 그들은 몰약과 침향으로 씌어가는 몸에 기름을 바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보기를 예상합니다.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일요일),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가 아닙니다. 그들의 유일한 질문은 “저 거대한 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입니다.

4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이 굴러진 것을 봅니다(16:4).

누가 돌을 다시 굴러 놓았을까요?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옆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흠.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벌거벗고 도망쳤던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그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알몸으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천사인 "흰옷"을 입고 자신 있게 무덤에 앉아 계시는 뿐입니다(마 28:5 참조).

그리고 그 여자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있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동시에 놀라고 한 겹에 질려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이 동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돌은 옮겨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이제 천사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시체를 도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는 그분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왔고. 무거운 돌을 걱정하며 왔고. 그리고 비극적인 드라마를 마무리하기 위해 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굴러내신 것은 예수님을 내보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여인들을 들어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니라.

천사는 빈 돌 탁자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결코 꿈도 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나시고 모든 시간과 영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a. 죄 용서: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섬김을 통해 그분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과녁을 놓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

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b.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우리 스스로 삶을 살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c. 정체성과 소속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d. 의미와 목적: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의미로 채우십니다. 우리 삶의 사건들에는 일관성이 있고, 매 순간의 중요성,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e. 죄에 대한 승리: 예수님은 죄, 즉 하나님 없이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인 본성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받습니다.

f.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 예수님은 악한 자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자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해소됩니다.

g. 영생: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지금 시작되는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2. 예수님은 우리의 폐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세 여인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요?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하라”(14:28). 가거라.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곳
- 따르라는 부르심을 처음 들었던 장소
-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곳
- 하늘나라가 권세를 잡는 징조를 본 장소
- 이제 그곳은 그들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소

심지어 베드로에게도요. 그는 떨어져 나갔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의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는 수치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야.” 예수님은 그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싶어 하십니다.

여인들은 베드로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받지만 혼란스러워 합니다. **8.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어져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다인가요?

여성들은 떨림과 경외감, 경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향신료를 구입합니다. 정신을 붙잡고 할 일을 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천사를 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황하고, 떨고,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다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8-10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은 나눌 최고의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에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다시 João와 Elis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간증: 두 번째 부분(영상)

인턴 2년 차 되던 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턴십과 관련하여 결혼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엘리스: 아니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주앙에게 말했을 때, 너무나도 놀랍게도 (같은 날인지 며칠 뒤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에게 인턴십을 계속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생각을 시작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은 마치 천국에 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주앙: 2022년 5월이나 6월인데, 아내와 제가 서로 반대되는 삶의 방향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삶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저의 불안과 공황 장애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에 도달했고... "저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최대한 많이 자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 되었고, 마음과 정신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미루고, 직장과 집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로 저는 리처드 목사님과의 연결되었고 프리덤 세션을 통해 제가 스스로 무력하고 예수님 없이는 계속 무력할 것이라는 이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과 증인으로 부르사 내 생애에 행하신 일의 일꾼과 증인으로 부르셨느니라” – 사도행전 28:16-18.

엘리스: 주앙과 저는 부부로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렵고 어두운 나날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큰 기쁨과 깊은 성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상황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앙이 세례를 받고, 그것은 다시 그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남편이 이제 한 육체, 한 몸, 영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앙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때가 왔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가 세례를 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앙: 지난 2월 4일, 리차드 목사님의 도움으로 제 아내는 저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 제 자신을 내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그분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스: 나에게 그러한 특권을 은혜롭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고, 나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응답: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앙은 2월 4일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자신에 대한 죽음과 새 생명, 새로운 호흡 방식로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이를 증거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증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예수님께 맡긴 날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미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호흡하는 것을 죽이고, 저의 죄성인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 죽고, 용서와 하나님과의 평화, 새로운 정체성, 소속감, 의미, 영생, 희망, 승리를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정의 어느 곳에 있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먼저 가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동일하게 만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현실에 눈을 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덤에서 달려 나오는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혼란스럽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당신을 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분을 실망시켰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회복, 즉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싶어 하십니다. 빈 무덤의 메시지로 마음을 새롭게 채워보세요.

당신이 한 번도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린 적이 없고 오늘 그분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당신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현존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